

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화 추이¹⁾

□ 2011년 3분기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

-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중심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2천 665억원, 7천 3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.0%, 31.2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3.7% 상승
 - '10년 1분기 전분기대비 -4.4% 하락이후 '10년 3분기에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'11년 1분기 이후 비교적 견실한 상승추세를 보임
- 게임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1천 792억원, 5천 1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.3%, 28.3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2.9% 상승.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 증가에 주도적 역할
 -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67.5%, 70.3%(68.0%, 71.9%)²⁾로 '11년 1분기(76.4%) 이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전년동기대비 비중도 하락
 -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 중 2분기에 이어 네오위즈게임즈(70.3%, 113.9%), CJ E&M 게임부문(73.8%, 49.2%) 등 자금력과 기술개발력 등 대내외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여전히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임. 대형업체 중 액토즈소프트는 '10년 1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'11년 3분기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1.0% 정체
 - ※ 엔씨소프트의 수출액은 '11년 1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7.1% 성장세를 보이다가 '11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'11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-10.8% 감소
 - 중소형 업체 중에서 게임빌, 웹젠, 이스트소프트, 컴투스, 한빛소프트, 엠게임,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등을 제외한 업체들의 경우 '11년 3분기 전년동기

1)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 86개 선별(게임(20), 지식정보(7), 출판(9), 방송(22), 광고(4), 영화(9), 음악(10), 애니메이션/캐릭터(5)), 단 게임, 방송, 영화, 음악 등 4개 분야에 CJ E&M 중복적용.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등록된 기업 보고서

2) 2011년 2분기 수출액 비중

대미 수출부진상태를 나타냄

- ※ 모바일 게임업체인 컴투스 및 게임빌은 '11년 1분기 이후 국내외 스마트폰 등의 폭발적인 보급확대에 따른 관련 게임수요 증대로 큰 폭의 수출증대를 보임. 컴투스 및 게임빌의 '11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6.8%(213.2%)³⁾, 274.6%(235.7%) 성장하여 '10년도의 수출성장세가 '11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상황
- ※ '11년 3분기 게임 상장사들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.5%로 전년동기대비 -5.1%p 하락

- 게임의 수출은 전분기대비 '10년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

- ※ '10년 3분기에서 '11년 2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2.3%, 12.1%, 5.7%, 5.3%

● 방송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439억원, 1천 13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.5%, 116.4% 성장했으나 전분기대비 -1.0% 하락

-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 비중은 16.5%, 15.4%

- 방송은 '10년 4분기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'11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

● 애니/캐릭터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187억원, 57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-12.2% 감소 및 11.0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-8.4% 하락

-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 비중은 7.1%, 7.7%

- 애니/캐릭터는 '10년 1분기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'11년 3분기는 하락세

● 출판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15억원, 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.3%, 29.0%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-3.8% 하락

-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 비중은 0.6%, 0.5%

- 출판은 '10년 2분기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'11년 2분기에 다소 높은 상승이후 '11년 3분기에 하락세로 반전

● 영화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50억원, 1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6.3%, 20.9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7.0% 상승

-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 비중은 1.9%, 1.5%

3) 2011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

- 영화는 '10년 4분기까지 상승세에서 '11년 1분기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2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

● 음악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170억원, 3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.1% 증가, -20.1%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 57.6% 상승

- '11년 3분기 및 3분기누적 수출액 비중은 6.4%, 4.5%

- 음악은 '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수출하락세를 나타내다 '11년 1분기부터 높은 상승을 보임

<표 1> '10년 3분기~'11년 3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 : 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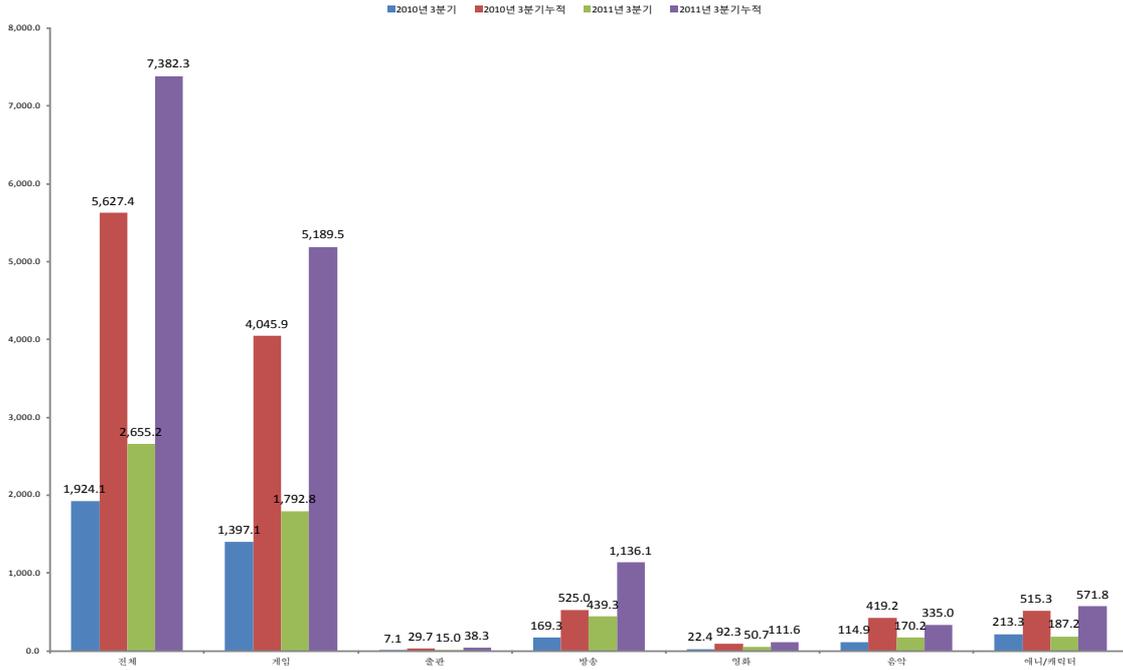
구분	2010년				2011년				
	3분기 (전기대비)	3분기누적 (전년동기)	4분기 (전기대비)	2010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년동기)	3분기누적 (전년동기)
게임	1,397.1 (2.3%)	4,045.9 (11.1%)	1,565.6 (12.1%)	5,611.5 (10.4%)	1,654.9 (5.7%)	1,741.8 (5.3%)	1,792.8 (2.9%)	28.3%	5,189.5 (28.3%)
지식정보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출판	7.1 (-37.7%)	29.7 (16.4%)	15.7 (121.1%)	45.4 (28.8%)	7.7 (-51.0%)	15.6 (102.6%)	15.0 (-3.8%)	111.3%	38.3 (29.0%)
방송	169.3 (-4.9%)	525.0 (284.8%)	244.9 (44.7%)	769.9 (139.4%)	253.0 (3.3%)	443.8 (75.4%)	439.3 (-1.0%)	159.5%	1,136.1 (116.4%)
광고	n/a	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영화	22.4 (8.4%)	92.3 (3.9%)	23.5 (4.9%)	115.8 (-7.0%)	13.5 (-42.6%)	47.4 (251.1%)	50.7 (7.0%)	126.3%	111.6 (20.9%)
음악	114.9 (-24.1%)	419.2 (129.6%)	32.5 (-71.7%)	451.7 (84.8%)	56.8 (74.8%)	108.0 (90.1%)	170.2 (57.6%)	48.1%	335.0 (-20.1%)
애니/캐릭터	213.3 (18.5%)	515.3 (33.8%)	188.4 (-11.7%)	703.7 (35.7%)	180.3 (-4.3%)	204.3 (13.3%)	187.2 (-8.4%)	-12.2%	571.8 (11.0%)
합계	1,924.1 (0.9%)	5,627.4 (25.7%)	2,070.6 (7.6%)	7,698.0 (20.4%)	2,166.2 (4.6%)	2,560.9 (18.2%)	2,655.2 (3.7%)	38.0%	7,382.3 (31.2%)

- 1) 게임 중 'CJ 인터넷'은 '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됨에 따라 '10년 4분기까지는 'CJ 인터넷' 및 '11년 1분기 이후는 'CJ E&M' 게임부문 영업이익을 적용. 'NHN'은 실적보고서상 '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
- 2)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
- 3) 출판 중 '대교', '능률교육', '예림당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4) 방송 중 'CJ오쇼핑', 'CJ E&M', 'SBS콘텐츠허브', 'iMBC', '초록뱀', '팬엔터테인먼트', '삼화네트웍스', '나우콤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5) 영화 중 '미디어플러스', '키이스트', 'CJ E&M'에서 수출 발생
- 6) 음악 중 'CJ E&M', '에스엠', '소리바다', '네오위즈인터넷'에서 수출 발생.
- 7) 애니/캐릭터 중 '코코엔터테인먼트'와 '스튜디오스'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. '바른손'은 실적보고서상에서 '11

년 2분기에 수출액을 발표했으나, 과거데이터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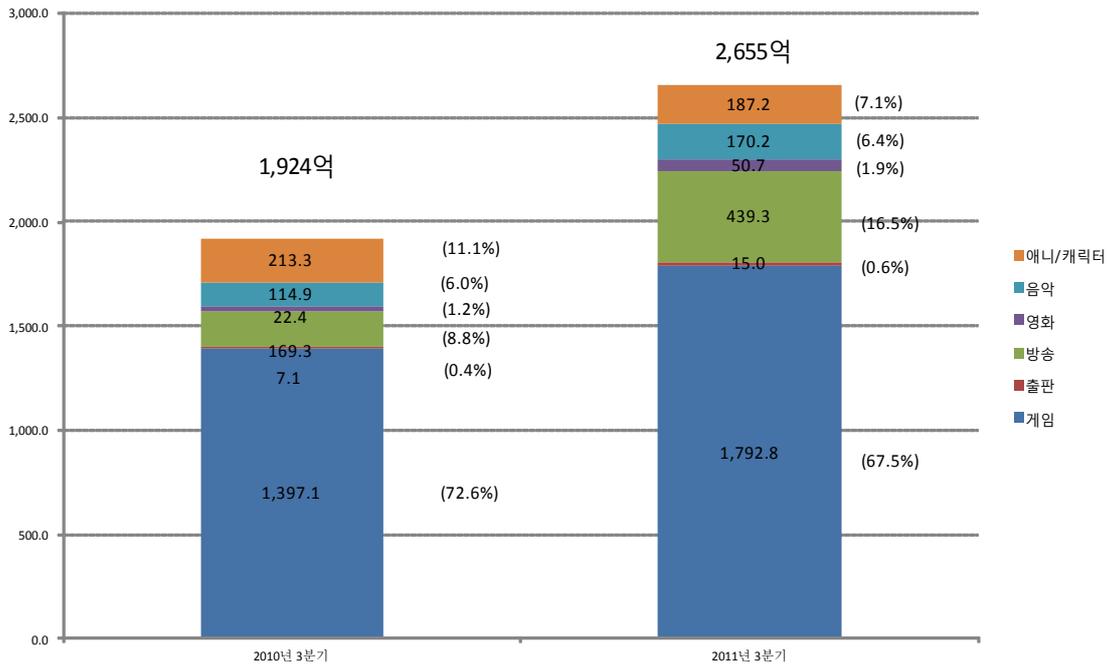
<그림 1> '10년 3분기 vs '11년 3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 : 억원)



<그림 2> '10년 3분기 vs '11년 3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



<그림 3> '10년 3분기누적 vs '11년 3분기누적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

